대학 내 동성애 운동과 대응 방향

남승호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서울대 기독교수협의회 총무)

1. 서울대학교의 동성애 운동과 반동성애 운동

2015년 11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김보미 후보는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며, 출마의 기조 연설에서 "성적 지향은 인간이 가진 다양한 속성 중 하나일 뿐이고 이와 관계없이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세상과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김보미 후보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후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공약을 "임기 내 명운을 걸고 꼭 완수하고 싶은 공약"이라고 공언하였다. 〈인권가이드라인〉은 소위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규범으로서,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 '가족 상황 및 형태')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였다. 이후 총학생회 산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고, 두 차례 〈전체학생대표자회

의〉에서 요식적 논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코칭과 후원을 받았다. 총학생회는 〈인권가이드라인〉을 학교 당국에 전달하고 공식 제정을 요구하였으나, 학교 안팎에서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어나고 서울대 성낙인 총장이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총학생회의 운동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되었고 현재까지 〈인권가이드라인〉 이슈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

이와 같이 대학 내의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이 2016년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시도되었으나, 앞으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문화한 〈인권가이드라인〉(혹은 인권조례/차별금지조례) 제정 시도가 여러 대학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총학생회의 대표가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힌 연세대(총여학생회장), 계원예술대(총학생회장), 카이스트(총학생회장) 등의 움직임이 주목되며, 이외에도 이미 60여 개 대학에 생겨난 동성애 학생동아리들이 각 캠퍼스에서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규범 제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 대학의 동성애 운동과 대학생들의 동성애 인식 현황

서울대 총학생회의 동성애 운동: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래 전부터 일반 학생들에게 동성애자("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단과대학과 학과 차원에서 진행해 왔다. 이는 특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신입생들은 입학하기 전 매년 1-2월 단과대학 학생회가 주관하는 〈신입생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는데, 여기에서 선배들은 신입생들에게 소위 "인권조례"(혹은 "어울림조례" 등으로

> 대학 내 동성애 동아리가 확산되면
> 머지않은 시점에,
> 빠르면 수년 내에
>
> 한국 대학의 문화가
> 부도덕한 성적 타락의 길로
> 내달을 것이며,
> 이는 한국 사회 문화의 근간을
> 무너뜨리게 된다.

불림)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례에는 빠짐없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포함되며, 이는 대학 사회의 규범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는 대학 내 구성원들의 학문과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동성애 인권 교육'은 일반 학생들의 비판적 지성을 마비시키고, 대학 생활 내내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여 무비판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도록 호도한다. 특히 기독학생들은 이러한 교육과 편견주입으로 인해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회의에 빠지고, 복음의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복음 전도를 회피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캠퍼스의 동성애 학생 동아리 확산:

최근 많은 대학에서 동성애 학생 동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학 내 동성애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대학 내 동성애 동아리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보다 국내 다수 대학이 연합하여 활동하며, "QUV"라는 이름의 연합체에는 60여 개 대학의 동성애 학생 동아리가 가입되어 있다. 대학 연합체의 활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들이 한국 동성애("성소수자") 운동 단체들(예를 들면, "무지개 행동" 등)과 깊은 연결고리를 갖는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동성애 운동이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 층의 동성애 운동가 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자치단체)의 동성애 운동을 이끌어가는 거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 내 동성애 동아리가 확산되면 머지않은 시점에, 빠르면 수년 내에 한국 대학의 문화가 부도덕한 성적 타락의 길로 내달을 것이며, 이는 한국 사회 문화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동성애 학생 동아리는 1995년 연세대학교에서 '컴투게더' (1995년 3월)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서울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QIS'가 결성되었다. 기독교 재단의 대학이나 신학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이화여대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숭실대 'SSU LGBT', 총신대 '깡총깡총', 한신대 '고발자'. 2013년에는 전국 대학의 동성애 학생 동아리의 연합체(QUV)가 구성되었고, 2014년 8월에 이에 참여한 대학은 15개에 불과했으나, 최근 그 수가 급증하여 2016년 말 현재 54개 대학의 59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동아리들의 활동은 매우 다양하고 급진적이며, 학내와 학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캠페인, 현수막, 대자보, 세미나, 문화행사(동성애영화 상영), 동성애 교육(청소년 대상 포함), 퀴어문화축제 공동참가, 동성애 동아리 퀴어 파티 등.

서울대 학생의 동성애 인식:

2016년 서울대학교에서는 동성애 운동이 표면화되고 이에 대한 기독학생들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의 기독학생들은 동성애(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016년 서울대 내부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1] 조사에서 나타난 기독학생들의 의식은 아래의 예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Q)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1) 동성애는 죄지만, 다른 죄보다 특별히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 "동성애를 너무 큰 죄처럼 이야기하면서 다른 죄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모습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이미 죄를 많이 짓고 있으면서 유독 동성애 문제만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A2) 동성애는 심각한 죄악으로 절대로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
(예) "사회의 건전한 성 가치관과 성 윤리를 깨뜨리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A3) 동성애를 단순히 죄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예1) "저는 성경의 무오설을 믿지 않아요. 동성애를 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해석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2)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략) 사랑의 형태에서 죄의 기준은 사랑의 대상

1. 조예상 (2016) '동성애에 대한 서울대학교 기독학생의 인식과 인권가이드라인에의 제언' (서울대학교 베리타스포럼(2차, 2016.9.28),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2016) '서울대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 서울대학교의 다양성이란?'

이 동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타자를 욕망의 대상으로 삼느냐 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도 죄인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성애 역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조예상(2016)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한국교회에도 제언… 먼저는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서울대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싶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법률에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대학가에서 비기독교인들과 살을 맞대며 살아가는 기독 청년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다. …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관해서만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귀 기울이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서울대학교 총장 직속 기관인 〈다양성위원회〉는 2016년 하반기 수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서울대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12월 13일 발표하였다.(응답자 수: 5,240명) 이 조사에서는 '다양성'이라는 범주에 '성별, 종교, 국적, 장애' 등 전통적인 차별사유들 이외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대학 내의 '차별금지'(혹은 '인권') 담론에서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 가운데는, 응답자들 가운데 4.5%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또한 7.5%가 '개선되어야 할 차별문화'로서 성적 소수자 차별을 꼽았다.

미국 대학의 동성애 운동과 차별금지법:

20세기 후반 미국의 동성애 운동은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사회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와중에 대학은 동성애 운동의 기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학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그 안에는 '종교'와 '성적 지향'이 차별사유로 적시되었으며, 이는 대학의 기독학생 동아리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가운데 미국 〈대법원 2010년 판례〉는 많은 대학들이 크리스천 그룹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캘리포니아 소재 공립대학의 Law School들에서 "동성애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크리스천 학생 동아리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San Francisco의 Hastings College of the Law에서 제기된 소송이었는데, 아홉 명의 대법원 판사들은 5대4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이후 특별히 여러 대학에서 차별금지조례 시행에 따른 갈등이 표출되었다.[2]

Time지 기사(2016.10.6)는 "미국 대학 선교단체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스텝들을 방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가운데 하나인 InterVarsity가 소속 스텝멤버 1,300명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하달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동성혼(gay marriage)을 옹호하거나 혹은 InterVarsity(IVF)의 성(sexuality)에 관한 공식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11월 11일부로 단체

2. 이 시기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기독학생 동아리의 활동이 제한되는 갈등이 표출되었다. Bowdoin University,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alifornia State University), Vanderbilt 대학, Tufts University,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Rollins College in Florida. NYTimes 2014.6.9: "Colleges and Evangelicals Collide on Bias Policy", (http://intervarsity.org/news/intervarsity-chapters-return-csu), InterVarsity 홈페이지 게시물(2017.1.18 방문):

'동성애 (인권) 운동'에
맞닥뜨린 기독학생들은
대부분 뒤로 물러서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의
'동성애(운동)'에 대한
인식에서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청소년을 포함한 신자들에게
동성애(운동)에 관하여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를 떠나야 한다." 이는 스텝들에게 강요된 것은 아니지만, 공식 지침에 동의하지 않는 스텝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단체를 떠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InterVarsity가 공개한 〈인간의 성에 관한 신학적 개요〉는 '이혼'과 '혼전 성관계'를 금하며, 특별히 '동성혼'을 분명히 죄로 규정하며 금하고 있다.

3. 기독청년들의 동성애 (운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야

대학에 입학하는 기독청년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믿음'과 대학에 만연한 '다원주의적/상대주의적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한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동성애 (인권) 운동'에 맞닥뜨린 기독학생들은 대부분 뒤로 물러서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의 '동성애(운동)'에 대한 인식에서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청소년을 포함한 신자들에게 동성애(운동)에 관하여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교육이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서울대학교에서 2015년 말 총학생회의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시도가 표면화 되었을 때 거의 모든 기독학생들은 〈인권가이드라인〉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전학대회에 참석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기독 학생은 기독인 연합 활동을 하는 극소수였다. 또한 기독학생들은 대체로 '반동성애 운동가'를 대학에 초청하여 특강을 듣거나, 기독교수 그룹에서 동성애 관련 포럼을 주관하는 문제에 관해 기대보다는 오히려 우려를 표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둔 강사들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기독학생들이 점차 동성애 운동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대학사회에서 동성애 운동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동성애 운동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세미나, 그리고 '동성애와 한국사회'라는 주제의 '서울대 베리타스포럼'(1-2차)이 이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대응 노력을 통해, 서울대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의 동성애(운동)의 진실에 대한 인식이 점차 제고되었다. 특히 기독학생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대자보 활동을 개시하면서 적극적인 반동성애 학생운동 그룹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런 변화는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독학생들도 동성애 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다각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성애(운동)의 실상과 그 폐해에 관해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동성애 운동과 동성애자의 삶(감정과 사고와 행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에 대한 적합

한 대응을 찾지 못해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 동성애자들과의 공존을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성애자와의 공존을 인정하고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며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기독 청년들이 동성애(운동)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래 정보들이 매우 실효적이었다.

(1) 신학적 정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퀴어 신학은 극소수 신학자들의 조작적 주장에 불과하다.
(2) 생물학적 정보: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3) 보건학적 정보: AIDS와 남성의 동성간 성행위의 상관 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동성애 운동을 이대로 방치하면 AIDS 환자는 계속 급증하고, AIDS 관리와 치료를 위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4) 정신의학적 정보: 미국의 동성애 운동은 불합리한 방법을 동원하여 동성애 성향을 정신병 범주에서 제외시켰으며, 아직도 그 범주 설정에 논란이 있다.
(5) 법학적 정보: 최근 대법원 판례와 헌재의 결정문에는 "동성간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준하는 발언은 전혀 '혐오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
(6) 철학적-사상적 근거: 한국의 동성애 운동은 국제적인 성해방 운동과 성혁명, 그리고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국제 동성애 운동에 맥을 잇고 있으며, 이 흐름은 모두 반기독교 운동으로 수렴된다.

최근 20년 동안 대학생 신앙 운동이 약화되었다.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학생들은 줄어가고, 대학 내 선교단체들은 청년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동성애 운동은 대학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회의를 품게 하고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게 한다. 대학 사회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보루여야 하며, 이에는 동성애(운동) 이슈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동성애 운동의 실체와 폐해를 이 시대 청년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그리하여 한국의 청년세대가 진리를 선포하고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

글 | 남승호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서울대 기독교수협의회 총무, 미국UCLA 언어학박사, 한국언어정보학회 회장